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마음 모아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9월의 끝자락에 서면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지난 한 주의 무게가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로 다 못한 한숨까지도 품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아래 기도문은 예배를 섬기는 분과 함께 드리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각 문단은 교회 상황에 맞게 덧붙이거나 줄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멋진 말'보다 '정직한 마음'이 먼저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 감사와 예배의 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1)

주님, 찬양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소음에서 떠나 오직 주님께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내며 미처 고백하지 못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숨을 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찬양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주님의 선물입니다.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염려와 비교와 피로를 내려놓게 하소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예배가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뎌진 심령을 깨우셔서, 작은 목소리라도 진심이 담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자에게 겸손과 담대함을 주시고, 악기와 음향, 자리와 안내를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대'가 아니라 '예배'로 서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관계가 풀리게 하시며, 길을 잃은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들린 헌금과 시간과 재능도 주님께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드림이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붙드시고, 우리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2 회개와 새로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쉽게 판단하고, 사랑을 미루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따뜻한 말 대신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었고, 온라인과 일상에서 분노를 쉽게 쏟아냈습니다. 내 의로움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작게 보았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위로와 세움의 말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계획을 앞세웠고, '이 정도면 된다'는 타협 속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넘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느려지고 둔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깨우셔서, 오늘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 속에 쌓인 죄를 풀어 주옵소서. 용서해야 알면서도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 사과해야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미뤄 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화해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상대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로 몰아넣는 어둠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새 옷 입은 사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세상 속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 교회와 다음세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교회가 다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은 많아도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활동은 활발해도 사랑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이 서로를 향한 경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짐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분별과 온유를, 성도들에게는 순종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관계와 정체성의 고민 속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흔들릴 때, 교회가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복음으로 품어 주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속도에 눌려 지친 마음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수고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작은 습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가족을 허락하셔서, 외로움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고, 상처 입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복음의 소망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4 나라와 일상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나라와 이 시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불안한 경제와 갈라진 마음,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작은 기도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주옵소서.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공의와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약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의 갈등이 대화와 절제로 풀리게 하시며, 정의를 외치는 마음이

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학교, 가정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취업과 생계의 무게로 낙심한 청년들, 병과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 홀로 버티는 어르신들 곁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진실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소문과 자극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듣고 천천히 말하게 하옵소서. 사고와 재난으로 마음을 잃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전과 책임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가게와 현장과 병원과 학교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를 맡기라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5 가정과 치유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시편 103:3-4)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의 사정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지만 속으로는 아픈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져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길어 마음이 지칠 때,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의료진에게는 지혜와 섬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드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불안과 우울, 번아웃과 외로움이 믿음이 없는 증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괜찮아'라는 말로 덮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걸어 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하옵소서. 배우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인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말이 짧아진 자리에 다시 사랑의 대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육아와 돌봄의 부담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의 손을 잡게 하시고,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별의 슬픔을 지나고 있는 가정도 붙들어 주옵소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위로가 밤을 지키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이 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숨 쉬고 다시 사랑하며 다시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6 열방과 파송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선교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낯선 문화와 언어, 환경의 한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협력하는 현지 교회에 연합을 주시고, 작은 열매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증인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동네와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말로만이 아니라 정직과 친절, 책임과 절제로

복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전할 때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가진 시간과 재정, 재능을 주님의 뜻에 드리게 하옵소서. '남는 것'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셨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서로를 향한 말과 시선을 절제하며, 복음의 본질 위에서 겸손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난 뒤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찬양이 한 주간의 선택과 관계를 바꾸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 더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넷째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7 성령의 충만과 결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17)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마음이 눌린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식어 있던 자는 다시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기도로 멈출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본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래 참음이 참는 척이 아니라 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험담이 아니라 중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해 주옵소서. 주일과 예배를 중심에 두되, 그 고백이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한 한 가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흩어지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선택과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